

○ 주요 기사

(고용/노사) 9건

조선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감독만 한다
중앙	노동이사제 일단 제동 ... 불씨는 더 커질 듯
	대구 파riba게뜨 제빵사들 "직접고용 최선 아니다"
동아	'5종 세트' 고졸, 취업 99% 뚫다... 직업계高 졸업생 취업률 50% 돌파
	노동이사제 막았지만... KB금융, 노조 리스크 가시화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고용 원치 않는다"... 민노총에 반기
한국경제	158번 지원자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이름도, 학교도 안 따졌다
경향	경영위기 직격탄 맞는 '을 중의을' 비정규직

(사설/칼럼) 1건

조선	[사설]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사	제목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A1면
		내용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외 이사를 앉히려던 KB금융 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友軍)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변수.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움. 국민연금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이 민노총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친(親)노조 행보를 가속화
	노사	제목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감독만 한다 A3면
		내용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주로 들지만 실제 운영에서 한국과는 차이.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결정은 대부분 경영위원회에서 하고, 감독이사회는 경영위원회를 견제·감독. 노동자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감독이사회. 한국은 이사회가 한곳으로 일원화되어, 여기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면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
	노사	제목	[사설]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A35면
		내용	정부는 국민연금의 '공익성' 을 앞세워 친노동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 경영을 해칠 수 있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노동 이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산 손실을 자초하는 사태가 될 우려. 또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 국민연금이 노동 이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것 역시 정치적 행위이자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것. 여권이 그토록 비판한 삼성계열사 합병 때의 의결권 행사와 다름이 없음
중앙	고용 노사	제목	노동이사제 일단 제동 ... 불씨는 더 커질 듯 B1면
		내용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문제였다. 노조 측은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노조의 제안에 대한 찬성표는 13.73%였다. 9.6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했다. 이를 빼면 주주의 4.05%만 찬성한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좌절됐다.
	고용 노사	제목	대구 파riba게뜨 제빵사들 "직접고용 최선 아니다" B4면
		내용	파riba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 지역 제빵사 3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직접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고용부가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에 반대하는 제빵사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일보	노사	제목	'5종 세트' 고졸, 취업 99% 뚫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50% 돌파 A1면
		내용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올해 2월 졸업생 기준)이 50.6%로 집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0%를 넘은 건 2000년(51.4%) 이후 17년 만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사상 최악인 청년 취업난 해소의 한 대안임이 입증
	노사	제목	노동이사제 막았지만... KB금융, 노조 리스크 가시화 B1면
	내용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주총장에 주주들이 몰려들며 긴장감이 높아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선임 여부가 조금 있으면 결정되는 순간. 하지만 막상 표 대결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윤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고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이번 주총은 KB 경영진의 완승으로 결론. 하지만 친(親)노조적인 정부를 등에 업은 금융권 노조의 경영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노사	제목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고용 원치 않는다"... 민노총에 반기 B3면	
	내용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 고용'이라는 행정지시를 내린 뒤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 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 29일 법원 판결이라는 변수까지 앞둔 가운데 같은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도 '직접 고용'과 '3자 합자회사 고용'이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지도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옴.	
한경	고용 노사	제목	158번 지원자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이름도, 학교도 안 따졌다 A31면
		내용	농협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이날 면접장에서 만난 한 여성 지원자는 "나이가 좀 많은데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며 블라인드 채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는 않았다. 또 다른 지원자는 "필기시험 때 40대로 보이는 지원자가 옆자리에 앉아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고 시험감독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이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뺏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경향	노사	제목	경영위기 직격탄 맞는 '을 중의을' 비정규직 A12면
		내용	· 한국지엠 '인소싱' 추진 경영위기를 맞은 한국지엠이 아웃소싱했던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게 돌려 인건비를 줄이는 '인소싱'을 추진. 창원공장에서는 8개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700여명이 근무. 회사와 정규직과 비정규 장기직·단기직들의 처지는 제각기 다르지만,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이들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